

보도시점 2026. 7. 2.(목) 배포 즉시

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7.2.(목) 경향신문(온라인) - ‘폭염 속 온열질환 산재 5년새 6배 급증’
연합뉴스TV - ‘폭염에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노동자...올해 벌써 4명 ‘산재 사망’

- 폭염에서 일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급증하는 추세다. 올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해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만 벌써 4명이다.
- 올해의 경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총 18건이 접수됐고, 12건이 승인됐다, 이 가운데 산재 승인을 받은 사망자는 4명이었다.

2. 설명 내용

- 기사에 보도된 사망자 4명은 지난 해 '25년 7~8월 폭염 시 발생하여, '26년 승인된 건입니다.
- 또한, 올해 5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12건 중 실제 올해 발생한 재해는 1건이며, 나머지 11건은 '25년 10건 및 '24년 발생한 건입니다.
 - * 온열질환 산재는 의학적 심사 및 질병 인과관계 조사 등으로 산업재해 신청부터 승인까지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됨
- 질병관리청 통계('26.7.2. 기준)에 따르면, 올해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51.5% 감소하였습니다.
- 노동부의 집중 관리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1명으로, 지난해 동기(167명)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.

- 고용노동부는 「'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」 발표('26.5.13.) 이후 폭염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 -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큰 건설업, 물류·유통업, 조선업, 항공·항만업 등 폭염취약 업종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및 「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」 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.
- 향후,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하여 폭염 집중점검 및 상시 패트롤 점검 등 현장 감독을 더욱 철저히 엄격하게 집행하겠습니다.
 -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, 현장의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.
 - 폭염경보(체감온도 35℃ 이상) 상황에서 옥외 작업을 강행하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과 장	신백우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	박현건 (044-202-8891) 한진우 (044-202-8895)